

<컴패션 뉴스레터 1967년 3-4월호>

컴패션의 심장 박동

- 글: 미리암 스완슨

제가 지난번 글을 쓴 지 1년이 넘었기에, 여러분과 다시 한번 "대화"할 수 있기를 오랫동안 고대해 왔습니다. 지난 15개월 동안 정말 많은 분들로부터 마음이 따뜻해지는 위로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기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정도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남편의 소천 후 이 과도기는 저와 컴패션에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축복으로 가득합니다. 저는 요즘처럼 바빴던 적이 없었고, 우리 손에 맡기신 이 사역을 통해 제가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매일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봄, 한국에서 열린 연례 바이블 콘퍼런스에 참석하고, 현재 거의 완공된 새 본부 건물의 기공식에서 첫 삽을 뜰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또한 신임 회장으로 부임한 헨리 하비 목사님이 구스타프 A. 햄월 박사와 함께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를 맞이할 수 있어 매우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수많은 보육원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열렬한 환영과 환대를 받았습니다.

8월에는 네 명의 한국 고아들과 그들의 선생님인 장 여사(Mrs. Chang)와 함께 미국과 캐나다의 많은 지역을 순회하며 컴패션의 사역을 소개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보람 있는 경험이었으며, 수백 명의 새로운 후원자가 생겼습니다. 사실, 이번 투어에 대한 반응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9월에 또 다른 비전트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전트립의 가장 좋은 점은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후원자님들을 만날 때 저는 마치 제 가족을 만난 것과 같은 강한 친밀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많은 분들도 동일하게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헨리 하비 목사님은 올해 한국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지금은 아내 크레오(Creo) 여사와 함께 한국에 있습니다. 이는 이 중요한 전환기에 꼭 필요한 일이었으며, 그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선교사이자 사업 행정가로서의 그의 과거 훈련과 경험은 그가 컴패션의 대표이사로서 맡게 될 중요한 책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를 준비시킨 초석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때에 그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주님은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요?

에드워드 김볼(Edward Kimball) 사역총괄실장 역시 한국 사무소에서 섬긴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놀라운 일을 해내고 있으며, 그동안 그 없이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사무 행정과 관련된 모든 업무 외에도 그와 그의 아내는 부지런히 언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모건 박사는 전도 분야에서 한국인들과 함께 더욱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해 언어 공부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모건 여사는 <가스펠 라이트(Gospel Light)> 번역 부서를 유능하게 이끌

고 있습니다. 우리의 두 간호사 샬리 스완슨(Sally Swanson)과 다이안 어브(Diane Erb) 씨는 둘 다 어린이들을 돌보는 일을 훌륭히 해내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이상 시카고 사무소를 총괄한 스와니(Swaney) 실장은 과중한 업무로 인해 휴식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일리노이주 크리스털 레이크(Crystal Lake)에 거주하는 제 남편의 형제인 레슬리 스완슨(Leslie Swanson)이 실장직을 맡기로 동의하였음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이것은 기도에 대한 진정한 응답으로 그의 다년간의 사업 경험 및 컴패션과 주님을 향한 사랑 덕분입니다. 스와니 전 실장은 향후 광고 및 홍보 업무를 담당할 것이며, 또한 여러분 모두 사랑해 주시는 저희 잡지 <컴패션>의 편집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시카고 사무소에는 훌륭하고 신실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독교인이라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최고의 직원들이며, 매일 부지런하고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전역의 신문에 실린 앤 랜더스(Ann Landers) 칼럼에 대한 보고서를 보시면 컴패션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아실 수 있습니다. 이 17세 소녀의 질문에 대한 그녀의 답변으로 인해 새로운 후원자가 계속 생겨나고 있으며, 우리는 새로운 후원자뿐만 아니라 그녀의 수많은 독자들에게 컴패션 사역을 알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우리는 5월에 캐나다 컴패션의 로버트 포사이스 팀장이 진행하는 두 번째 비전트립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비전트립인데, 컴패션 사역을 홍보하는 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는 것을 첫 번째 비전트립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사역 현장을 직접 본 사람들은 그들의 필요에 대해 큰 부담감을 느끼고 돌아왔으며, 그들 대부분은 컴패션의 진정한 홍보대사가 되어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비전트립은 저에게 특히 의미가 큼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새로운 본부 건물을 봉헌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1965년 11월 15일, 주님과 함께 하기위해 본향으로 떠난 나의 사랑하는 남편을 위한 이 멋진 추모에 기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가 병에 걸리기 훨씬 오래전부터 절실히 필요했던 이 건물을 위해 기도해 왔기에, 이것은 진정 최고의 헌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보육원을 방문한 전도팀의 결과는 제게 정말 큰 축복이었습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이 보고서를 보면서 제 남편이 어떻게 반응했을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기쁨으로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기쁨이 있다고 했으니, 이 5,000명의 영혼으로 인해 하늘에서 얼마나 큰 기쁨이 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또한 우리 전도사들의 사역의 결과로 오늘날 한국에 약 1,170개의 새로운 교회가 생겼다는 사실도 아시나요? 이것 또한 감사할 만한 축복이 아닙니까? 우리 사역의 이 한 가지 분야만으로도 얼마나 큰 영향력이 펼쳐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후원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축복이 더 많지만, 아마 이 보고서가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고, 이 사역과 그 거대한 영향력을 위해 더욱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할 것입니다. 하비 목사님과 모든 직원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또한 이사회에 특별한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컴패션 위에 손을 얹으셔서, 그 사역의 핵심이 항상 잃어버린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은 제 마음 속 기쁨과 평안에 대한 답이 되었기에 저에게 매우 의미가 깊었으며, 이 편지를 마치며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매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분의 평안과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기도합니다.

(사진: 등장 순서대로)

미리암 스완슨 여사

헨리 L. 하비 회장

에드워드 김볼 사역총괄실장

레슬리 스완슨 실장

고아의 하루

고아가 된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모든 보육원은 모두 슬프고 우울한 어린이들이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내는 곳일까요? 보육원 생활이 유용하고 책임감 있는 시민을 길러낼 수 있을까요?

고아가 되거나 버려진 아이가 된다는 것은 분명 행복한 경험이 아닙니다. 보육원 생활이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공한다고 해도, 그것은 정상적인 가족의 생활과는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컴패션 보육원의 생활은 다릅니다.

컴패션 보육원의 많은 어린이들은 부모 중 한 명 또는 두 명이 모두 죽었다는 점에서 진정한 고아입니다. 또한 더 많은 아이들은 부모와 친척들에 의해 버려지거나 방치되어, 스스로 책임지며 살아가야 했던 고아들입니다. 이 어린이들의 삶은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원치 않아 버려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 연약한 어린이들에게 컴패션 보육원은 진정한 안식처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참된 기독교 사랑의 따뜻함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필요는 충족됩니다... 어리고 약한 몸은 강해지고, 질병은 치료되며, 외로움의 절망은 극복됩니다. 이 어린이들은 미소를 짓기 시작하고,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고아들도 행복하고 잘 적응하는 젊은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긍휼을 통해 그들은 책임감 있고 생산적인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실린 어린 영자의 경우처럼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컴패션을 통해 절망의 깊은 곳에서 기쁨과 희망으로 어린이를 인도하는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진: 상단)

- 서울에 있는 에드워드 김볼 사역총괄실장은 자주 보육원을 방문합니다. 서울 머시 라이프 보육원(Mercy Life Orphanage)의 꼬마 영자(Yung Ja)가 그의 품에 달려들었습니다.
- 이(Lee) 원장님으로부터 컴패션 겨울 구호 프로그램(WARM, Winter Aid Relief Money)을 통해 받은 새 겨울의류 세트를 잘 착용했는지 확인받은 정자(Jung Ja)가 다른 어린이들과 놀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모습입니다. 보육원 생활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진: 중간)

1. 영자(Yung Ja)는 서울 1머시 라이프 보육원(Mercy Life Orphanage)에 왔을 때, 마음을 다친 가난한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그녀의 삶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 이제 그녀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요? 네, 사진 속 영자는 밝고 총명하며, 행복하게 웃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잘 적응한 어린 소녀입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인의 긍휼과 친절함을 경험했습니다.
3. 영자에게 인생은 놀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지한 순간들이 있고, 모든 어린이들처럼 그녀도 매일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우길(Lee Woo Kil) 원장님은 언제나 어려운 문제를 기

¹머시 라이프 보육원(Mercy Life Orphanage): 역주) 한글명 <혜생원>으로 1966년 컴패션 어린이 합창단으로 활동했던 캐시 캐리(Cathy Carey, 한글명 이정원) 씨가 어릴 때 살았던 보육원이다.

꺼이 도와주십니다.

(사진: 하단)

어린이들은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한때 그들은 배고픔, 추위, 외로움 같은 고난을 진정 겪어야 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좋은 음식, 따뜻한 옷과 거처를 누리고 있습니다.

알아 두면 좋을 것들

이것은 모든 컴패션 친구들의 중요한 관심 사항입니다. 하나하나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여러분의 후원이 더욱 즐거워집니다.

1. 우편 발송 안내

정부 규정 변경에 따라 이제 한국으로 편지나 소포를 보내는 데 A. P. O. 주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고아, 전도사 또는 학생에게 보내는 모든 편지와 소포는 아래 주소로 보내야 하며, 이 변경 사항은 즉시 적용됩니다:

어린이 번호 및 이름
보육원 번호 및 이름
컴패션
I. P. O. Box 1670
대한민국 서울

항상 어린이와 보육원의 번호와 이름을 모두 표시하십시오. 모든 우편물은 위에 표시된 주소로 발송해야 하며, 일반 보육원 배포하는 소포도 마찬가지입니다.

2. 전도사 보고서

이전에는 전도사와 성경 교사가 매월 보고서를 후원자에게 보내고, 보고서 발송 주기 사이에 후원자들이 보낸 편지에 답장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번역 부서에 큰 부담과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전도사 보고서는

분기별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보고서 발송 사이에 전도사나 성경 교사에게 편지를 보내시면 답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 활동 보고서는 매월이 아닌 3개월에 한 번씩 발송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전도사 번역 비용을 5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교육에 대한 요구

컴패션 후원 프로그램은 각 어린이에게 기본 초등 교육을 제공합니다. 한국에서는 이것이 유일한 무상 교육입니다. 중학교부터는 학비가 발생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비는 연간 약 100달러입니다. 그러나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은 경쟁을 통해 이루어지며, 모든 어린이가 입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후원하시는 자녀가 입학시험에 합격하면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며, 고등 교육을 지원할 기회를 드리게 됩니다. 어린이는 이전처럼 계속 컴패션 보육원에서 지내게 될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학 자격을 갖춘 후원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 요청은 의무가 아니라, 자녀가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기회입니다. 각 어린이가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4. 컴패션 겨울 구호 프로그램(WARM, Winter Aid Relief Money)

1966년 컴패션 겨울 구호 프로그램(WARM)은 사려 깊은 후원자 여러분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각 어린이는 따뜻한 컴패션 겨울 구호 프로그램(WARM) 겨울의류 세트를 받았습니다. 이전에 안내해 드린 대로, 두 세트 이상의 의류를 제공해 주신 후원자에게 감사의 표시로 윗놀이를 보내 드리기로 했으나, 세관 문제로 게임 배송이 지연되어 이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모든 윗놀이 세트가 발송되었습니다. 혹시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경우, 알려주시면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1967년 컴패션 겨울 구호 프로그램(WARM)을 위해서도 매우 특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선물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깜짝선물이 될 것입니다.

5. 후원받지 못하는 남자 어린이들

남자 어린이들, 남자 어린이들, 남자 어린이들! 아기 남자 어린이, 작은 남자 어린이, 큰 남자 어린이! 더 많은 친절의 사람들이 공허의 마음을 품고 소년들을 후원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고요? 왜냐하면 남자 어린이보다 여자 어린이 후원 요청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보육원에는 여자 어린이보다 남자 어린이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희가 겪고 있는 문제를 아실 수 있겠지요? 우리는 모든 어린이, 남자 어린이와 여자 어린이 모두를 돕고 싶지만, 지금은 남자 어린이를 후원할 사람이 더 급하게 필요합니다. 이 사정을 주위에 전해 주시고, 이 필

요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비전트립의 마지막 모집입니다!

네, 이게 정말 마지막 모집입니다. 두 번째 비전트립은 1967년 5월 5일부터 28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3주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1,190달러라는 저렴한 비용에는 개인 지출을 제외한 모든 비용이 포함됩니다. 참가자들은 한국에서 8일, 일본에서 1주일, 그리고 홍콩, 필리핀, 하와이에서 나머지 며칠을 보내게 됩니다. 또한 컴패션을 지지하는 헌신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는 3주간의 멋진 교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여행사에 문의하셔도, 비슷한 여행이 훨씬 더 비싸지만 제공되는 내용은 훨씬 적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전트립에 참여하고자 하신다면, 빠르게 응답하셔야 합니다. 아직 예약할 수 있는 자리가 일부 남아있습니다.

예약을 확정하시려면 지체하지 마시고, 컴패션 비전트립의 로버트 포샤이스 팀장에게 아래 주소로 편지를 보내십시오: Compassion Orient Tour Director, Box 880, Blenheim, Ontario, Canada. 지금 바로 서둘러 주십시오!

1966년 11월 30일 수요일, 시카고 선타임스(Chicago Sun-Times) 기사 소개

²앤 랜더스에게 물어보세요(Ask Ann Landers).

입양 부모가 되고 싶은 10대

친애하는 앤 랜더스님께,
저는 한 잡지에서 한 달에 10달러로 버려진 한국 어린이를 지원할 수 있다는 기사를 읽은 17세 고등학생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어린이의 양육기록을 받게 되고, 어린이가 양부모에게 편지를 보낼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꽤 넉넉한 용돈을 받고 있고, 주말에는 아기를 돌보는 일을 합니다. 17세인 제가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이 된다면, 어디로 연락하면 될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도움을 주고 싶은 이 올림

²앤 랜더스에게 물어보세요(Ask Ann Landers): 시카고 선타임스(Chicago Sun-Times)에서 연재된 조언 칼럼의 제목으로, 앤 랜더스라는 이름은 실제 칼럼을 집필한 에스더 폴린 "에피" 레더러(Esther Pauline "Eppie" Lederer, 1918-2002년) 필명이었다. 이 칼럼은 1955년부터 49년 동안 이어진 전국적인 미디어 칼럼으로, 독자들로부터 폭넓은 사랑을 받았다 (https://en.wikipedia.org/wiki/Eppie_Lederer).

친애하는 도움을 주고 싶은 이에게,
누군가 오늘날의 10대들을 비하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당신의 편지를 꺼내어 그들이 얼마나 틀렸는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 입양 계획에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컴패션으로 편지를 보내세요.

컴패션

7774 W. Irving Park Rd.,

Chicago 60634

캐나다에서는 아래 주소로 편지를 보내세요:

Box 880, Blenheim, Ontario, Canada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이 일을 하고자 하는 당신이 존경스럽습니다.

이 기사는 1966년 11월 30일 자 앤 랜더스(Ann Landers) 칼럼을 재인쇄한 것입니다. 기사 자체가 보여 주는 것처럼, 랜더스(Landers) 씨와 같은 사람들이 컴패션 사역을 그토록 높이 평가한다는 사실에 매우 감사합니다.

현재, 이 훌륭한 칼럼의 결과로 약 500명의 새로운 후원자가 생겼습니다. 이 기사를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보여주세요. 이것이 그들이 후원자가 되는 데 필요한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컴패션 우체통

주일학교의 축복

친애하는 주 안에서의 친구들께, 우리 주일학교에서 한국 고아를 후원함으로써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은 다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녀를 마치 우리 자신의 자녀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방식으로라도 그녀를 돌보고 기금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하이오주 아슈타블라(Ashtabula), A. H. 주일학교

후원자님의 기도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후원자님께, 이곳 보육원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한 사랑을 통

해 따뜻한 사랑을 보내주시는 후원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건강은 후원자님의 기도 덕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어려움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한 후원자님의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 김재수(Kim Jae Su) 보육원 원장

후원자의 사랑으로 성장하는 학생

사랑하는 후원자님께, 저는 후원자님의 따뜻한 사랑과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내는 모범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김순길(Kim Soon Kil) 학생

후원자의 편지를 받고 기뻐하는 고아

사랑하는 부모님께, 오, 후원자님의 친절한 편지를 받게 되어 정말 신나고 즐거운 날입니다! 후원자님의 편지를 읽을 때와 후원자님께 편지를 쓸 때가 항상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의 따뜻한 사랑과 깊은 관심 속에 저는 늘 너무나 행복합니다. 매일 밤 저는 두 분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는 잠들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심 어린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이춘자(Lee Choon Ja) 고아

성장하는 개척교회

사랑하는 후원자님께, 후원자님의 기독교적 사랑에 대해 어떻게 감사를 다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후원자님이 하나님의 일을 통해 저를 정말로 격려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원자님의 재정적 도움으로 우리 교회의 강단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교회에 이것을 구비할 수 있게 되어 저희 모두 얼마나 기쁘지 모릅니다. 우리는 후원자님이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충분한 보상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고월출(Koh Wul Chool) 전도사